

금융기관 새해포부를 듣는다 ⑧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양 기 원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마홀촌 사료사업, 共同 방역으로 축산농가 보호

## 가축계열화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

포천축협 예수금 및 대출금 현황은 지난 2003년도에 경우 예수금이 1천60억3천900만원, 대출금이 922억2천200만원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예수금이 1천206억3천600만원, 대출금 1천52억700만원 규모로 확대됐다.

포천축협은 배합사료를 판매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5만4천128톤에 170억8천만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으며 2005년도에는 5만5천913톤에 169억8천900만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포천축협 마트 매출은 2004년도에 15억9천9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16억4천200만원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포천축협은 2005년 새해 사업추진계획으로 맞춤형정 육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신축과 사료사업, 분점 이전 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맞춤형정 육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신축사업은 가축계열화 사업 실시로 고급품질의 축산물 생산하고 HACCP인증받은 육가공 공장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가공하여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포천의 축산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안전한 국민적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본사업방향으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승화시키고 가축계열화 사업 정착과 HACCP 인증, 냉장 유통으로 고급화·차별화는 물론 마홀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두고 있다. 마홀촌 육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사업은 가공공장 연면적 360평, 냉동창고 연면적 300평, 처리능력 1일 500두 작업처리와 냉동창고 약 1천톤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포천시 보조금 21억3천만원과 자부담 5천400만원 등 모두 26억7천만원을 들여 추진하며 가축계열화 사업과 연계하여 조합원은 생산에 전념하고 포천축협은 고품질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가공하여 인근조합과 연계하여 군납사업, 학교급식사업, 대형할인점 납품 및 식육판매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사료사업은 기존 중앙사료 및 지역조합사료를 조합원에 공급하였으나 축산농가의 사양관리를 건설팀부분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3월 자체사업으로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홀촌 사료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자체적인 배합사료 프로그램에 의한 입가공 공급방식으로 운영한다.

기대효과와 양축농가에 대한 원가절감을 통한 소득증대 실현과 전문 컨설팅을 통한 사양관리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지역별 팀장 제도 도입으로 양축가와 유대를 강화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고품질 저렴한 사료공급 체

계를 구성하는데 있다. 포천축협은 분점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조합원 및 외부고객이 조합방문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조합이용을 외면하고 신규고객유치에 어려움이 많아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축협은 또 7억5천만원의 지도사업비를 편성하여 조합원이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컨설팅과 생산지도사업, 방역사업, 축분 처리사업, 검정사업 및 자녀학자금지원과 공제가입 등으로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원 소득향상을 위한 지도사업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02년 3월 제14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양기원 포천축협 조합장은 "갈수록 축산농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환경보호정책 강화로 악취방지법 등을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어려운 축산농가의 실정을 감안해 몇 년 간이라도 유예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 조합장은 또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실시해 소규모 영세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해 처리장에서 처리하며 처리비용은 포천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 조합장은 특히 지난해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축계열화사업을 통해 농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5개 농가에서 시범운영중인 가축계열화사업은 사료와 컨설팅 지도, 사양관리, 가공, 판매, 유통까지 생산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축협에서 맡아 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공공장이 완공되면 더욱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농민들은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여도 축협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기원 조합장은 포천축협은 도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천축협은 방역지도사업을 통해 가축질병 등 전염병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방역실시하는 날로 정해 공동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양기원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축산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포천이 전국에서 축산업계 선두주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제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포천시는 물론 경기도와 정부에게도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 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 완주섬유

## 고급 양말 세탁의 선두주자



대표 김진우

"신뢰경영"과 "투명경영"을 경영목표로 삼고 국내에서 드물게 취급률 전량을 100% 미국과 유럽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는 완주섬유(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373 대표: 최인환)를 찾았다. 완주섬유는 무역부 바이어로부터 고급스러운 소재와 양질의 양말을 공급받아 각종 섬유유연제를 사용해 워싱 공정을 거쳐 해외로 수출

하지 않고 꼬박꼬박 지급해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최 대표는 "경영의 기본은 믿음과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며 "당사는 다년간에 걸쳐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100% 미주나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기에 정확한 납기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며 지금까지 여러 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연내나 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열과 성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 자신이 있었다"고 강조한다.

신념과 고집이 남다른 최 대표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자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까다로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최고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착각 없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세계시장의 변화로 남보다 한 박자 빠르게 그에 맞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완주섬유는 불량을 제로화를 지향하며 보다

## 남보다한 박자 빠르게 제품개발에 최선

##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수출업체로 발돋움

출하고 있는 업체다.

현재 완주섬유는 70~80개의 협력업체와 제휴하고 최인환 대표의 축적된 노하우를 접목시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몇 안되는 국내 업체 중에서 약 80% 정도의 일을 도맡아 추진하면서 동종업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선망의 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완주섬유는 서울 상계동을 시작으로 지난 2002년 위 소재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며 독특한 기술력으로 완벽한 제품을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최 대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며 결속력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최 대표의 애정과 관심이 창업 당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거리가 멀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속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는 맡은바 직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최 대표의 집념이 뒤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을 경영하며 직원들의 급여일을 한번도

나은 제품개발과 양질의 제품생산만을 고집하며 호텔, 모텔, 사우나, 찜질방 등 각종 세탁에도 최 대표만의 독창적인 경영감각으로 경쟁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고객만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 대표는 "최근 들어 중국이 팽목활만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업체도 다소 위협감을 느끼고 있지만 독특한 기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경영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능력있는 바이어, 70~80개 협력업체와의 유대관계, 체계적인 관리로 내실을 다지며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신뢰경영"과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알뜰한 같은 내실 있는 규모를 지향하며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완주섬유는 자사의 거시적인 경쟁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지향적인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신뢰경영"과 "투명경영"을 경영목표로 삼고 국내에서 드물게 취급률 전량을 100% 미국과 유럽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는 완주섬유.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의 차이점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액의 계산방법과 세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액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1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을 면제합니다.

※ 공급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채소·육류·어류·견과물 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고속철도·택시 등 제외)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잠의용역 등),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교육용역(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주택임대 등

○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뉴스통신(광고는 제외)

○ 생산요소

· 토지,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 등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62



포천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를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포천시 서민경제 부양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 체감경기가 좀처럼 완연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부양 등 다양한 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포천시는 지난 14일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특히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사업비 1억 이상 공사 185건 중 81% 이상을 상반기 내에 발주해 투자사업비 2천141억원의 52%이상을 이 기간 중 집행하기로 하는 등 올해 계획된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황용선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포천시는 이 밖에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상반기 중에 모두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일용노동자의 고용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매 기자 94spice@hanmail.net

## 산업안전사고 예방

##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던 중 추락



재해발생 상황도

레미콘 계량 호퍼 증축현장에서 거푸집 자재를 정리하던 중 바다개구부의 덮개로 설치된 유로폼을 거푸집 자재로 오인하고 이를 들어 올리다가 폼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하여(4m)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으로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불안정한 덮개 구조인 유로폼을 미끄럼 및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둘째, 개인 보호구 미착용으로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 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추락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률저로 추락해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